

일시 : 2005. 6. 20(월) 17: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참석자(존칭생략) : 김광이, 김미주, 허혜숙, 김미선, 차현미, 서승현, 양영진(간사단체)

1. 권리조약 관련일정

7월 6일 GO/NGO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7월 13일 각분야별 최종안제출

7월 22일 전체워크숍

7월 26~27 아시아태평양지역 의견조율을 위한 워크숍(방콕 UN ESCAP에서 열림)

7월 29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NGO초안의원 및 관련단체 출국

7월 30일 UN센터 내 회의장에서 여성조항관련 IDC (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주최 토론회

8월 1일부터 2주간 제 6차 특별위원회

2. 회의내용

(1) 장애여성 단독조항의 내용과 쟁점 (김광이)

-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여성단독조항을 한국에서 제안한 배경과 필요성, 5차회의까지의 흐름에 대한 설명(자료‘장애여성 단독조항의 내용과 쟁점’ 참조)

(2)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 장애여성단독조항의 논의흐름 (김미주)

90년 비엔나 회의에서부터 5차 특별위원회까지의 논의흐름에 대한 설명. (카페에 첨부된 자료참조)

현재까지의 쟁점

-Gender Mainstreaming (성주류화)전략과 Specific Article(단독조항)인가.

-Gender Perspective(성인지적 관점)은 무엇인가.

-gender perspective(성인지적 관점)과 disabled women' gender perspective(장애여성인 지적관점)은 무엇이 다른가.

(3) 논의의 흐름

- 현재 키키노브스트롬(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장, 스웨덴, 워킹그룹실무위원)의 Shot & Strong

Article이 제안돼 있으며, 캐나다에서 새로운 안을 준비중임.

- IDC 야후 토론그룹에서 6월3일 까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88개의 의견이 있었음.

- 제안된 전략 : 더블어프로우치(성주류화와 단독조항 2가지 안을 모두 준비)전략과 수직적 검토(장애여성의 욕구를 정리하여, 전문과 일반원리, 단독조항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 후 가급적 관련 조항에 넣는다)전략

(4)논의내용

- 단독조항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유럽에서 주장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차현미 선생님께서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착적'이라는 의미의 'indigenous'라는 단어를 삽입할 것을 제안.

(5)결정사항

- 키키의 안과 한국NGO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종수정안을 만들자.
- 다음모임까지 이를 위해 관련전문가들에게 두 안의 검토를 의뢰하자.
- 다음모임 7월7일(목) 19:00 건대 법학관